

# ‘매음굴 소년들’은 어떻게 ‘남성-국민’이 되는가\*

— 1950년대 소설의 ‘팸푸보이(pimp boy)’ 재현 연구

이 지 은\*\*

## 요약

이 글은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팸푸보이 재현을 통해 법률적·제도적으로만 포착할 수 없는 국민국가 (재)건설기 성 관리 시스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 관리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을 정상사회의 일원으로 배제 혹은 포함하는 통치성의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으로만 파악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연동하는 성 시장의 구조 변화는 물론이고 행위자들의 성차와 성역할 수행이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해방과 전쟁을 통과하면서 변화한 성매매 시장과 구성원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전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소년 소개꾼, 즉 ‘팸푸보이’에 주목하였다. 소설 속 팸푸보이들은 성매매 여성과 섹슈얼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그려짐에도 이러한 행위는 전쟁고아의 모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재현/독해되어 왔다. 그러나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추방으로 팸푸보이가 매음굴을 떠나는(일반 사회에 섞이는) 결말을 보인다. 성매매 여성은 제거되고 소년만 사회로 돌아가는 서사 패턴은 이들 소설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창 여성에게만 전가한 당대의 성차별적 담론의 자장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팸푸보이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서 획득하는 남성성이야말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글은 팸푸보이 재현 소설들이 서사 구조의 심층에서 마이너리티 소녀에게 정상사회에 편입하는 대가로 남성성의 내면화와 사창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5844)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어: 사창, 성매매, 펌푸, 전쟁고아, 성역할, 남성성, 황순원, 추식, 송병수

목차

1. 국민국가의 형성과 새로운 성(性) 관리 시스템
2. 사창의 확대와 펌푸(pimp)의 부상
3. 펌푸보이 서사의 규범화와 사창 여성의 추방
4. 규범적 서사의 균열, 펌푸보이의 남성성 획득
5. 펌푸보이의 성장과 ‘특급품’의 조건

## 1. 국민국가의 형성과 새로운 성(性) 관리 시스템

1945년 해방과 미군정 체제,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을 통과하면서 국가 (재)건설기 성(性)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민족적 과업으로서 일제 잔재 청산과 미군정이 표방한 민주제도의 확립, 그리고 여권운동의 대두라는 복합적인 정세 속에서 일제하 「경무총감부령」 제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1916)을 통해 공인된 성매매업, 즉 공창제는 폐지된다.<sup>1)</sup> 1947년 11월 14일 공포된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하 ‘공창제 폐지령’으로 약칭)은 “일정 이래의 악습을 배제하고 인도를 창명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매춘행위를 금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2)</sup> 그러나 공창 여성들의 생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을 앞세워 시행한 공창제 폐지는 해방 직후 번창한 유흥업과 함께 사창의 확대를 빚었다. 더하여 6·25전쟁은 군대를 중심으로 한 성착취/성매매의 확대를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한국 군대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군‘위안부’ 제도의 형태

1) 공창제 폐지에 관해서는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 역사학연구소, 2001 참조.

2) 「군정청 관보 법률 제7호: 공창제도등폐지령」, 1947.11.14.

를 띠었고,<sup>3)</sup> 일부는 군대 주위에 형성된 성(性)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미군 주둔이 장기화되면서 구매력이 큰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발전하게 되었고,<sup>4)</sup> 국가는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사창 지역을 '목인-관리'하였다.<sup>5)</sup>

이처럼 해방 이후 국가 성 관리 정책에 관한 사회학·역사학적 연구는

- 
- 3) 김귀옥은 『육·이오사면 후방전사: 인사편』(1956) 및 참전 군인들의 회고를 통해 한국 육군이 군'위안부' 제도를 운영했음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서는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선인, 2019, 45장 참조.
- 4)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기까지 일반 성매매 여성과 외국인 상대 성매매 여성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나, 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풍기문란이나 '순혈' 민족에 대한 위협 등을 들어 기지촌 여성을 분리·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군부대 주변 댄스홀 등을 내국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미헌병대에 구역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해 기지촌을 성장케 하였다.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이르면 경제논리에 따라 여성의 몸을 관광자원화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기지촌은 성산업을 중심으로 공고화된다. 기지촌의 형성과 공고화 과정에 관해서는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2007, 17-21면.
- 5) 일반적으로 공창제는 국가가 법률 및 행정 명령 등으로 성매매에 개입하여 관리(regulation)하는 성매매 제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공창제 폐지령」 이래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prohibition) 정책을 표방해 왔으나, 통상적으로 불법 상태를 묵인(tolerance)하거나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예외적으로 성매매를 관리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다. 한국의 성매매 정책을 '목인-관리 체제'의 변화로 살핀 박정미는 1950년대를 금지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목인-관리 정책이 생존한 시기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업은 공창/사창의 이분법으로 나누기 어려운 접이시대가 존재한다. 공식적으로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창제 폐지령」 이래 이루어진 모든 성매매는 사창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하고 성매매업을 산업화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7호, 1957. 2. 28., 시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91호, 1962. 10. 10., 시행) 등과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성매매 관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창제 폐지령」 및 「윤락방지법」과 충돌을 피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참조하여 본고는 '성매매업/ 성매매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당대 사회 담론을 인용하거나 시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는 '창기', '공창', '사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해서는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관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6-19면 및 2장;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1), 한국사회학회, 2015, 8-17면 참조.
-

집적되어 있지만, 한 사회의 성 관리 시스템은 국가의 법률 체계와 제도만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연동하는 성 시장 구조의 변화는 물론이고, 행위자(agent)들의 성차와 성역할의 수행이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사회 혼란의 근원으로 지목되던 사창은 타락한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사실 성매매업에는 포주, 알선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포주-여성’, ‘알선자-여성’은 시장 구조 안에서 ‘착취-피착취’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성역할에 따라 의존 관계, 혹은 유사(pseudo) 가족 관계를 맺기도 한다. 따라서 성 관리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구조적 조건 속에서 행위자들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제도와 구조를 누락한 채 개별 행위자에만 집중하면 착취 관계를 은폐하기 쉽고, 행위자들의 관계를 누락한 채 제도와 구조에만 집중하면 허방적인 정부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놓치게 된다.

본고는 국가의 성 관리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렴하면서,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담론을 통해 시스템 내부 행위자들의 성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성역할이 성 관리 시스템으로 포획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이 글이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전후 성매매 시장에 소년들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사실이다. 공창제 폐지 이후 사창이 확대되면서 성매매 알선자가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고, 이에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소년들, 혹은 가난으로 인해 돈벌이에 내몰린 소년들이 성매매 알선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소년 성매매 알선자, 즉 ‘웬푸보이(pimp boy)’<sup>6)</sup>라 불린 아이들은 왕초 소굴의 구걸패, 소매치기(꽃제비) 등과 함께 1950년대 부랑아 문제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특히 사창가에서 활동하는

6) 성매매를 알선하는 소년들은 ‘뚜쟁이’, ‘웬푸(페코푸)’, ‘웬프’, ‘웬푸보이’ 등으로 불렸고, 맥락에 따라 (주로 미군 부대 주위의) 키가 작은 소년이라는 뜻으로 ‘쇼리(shorty)’, 혹은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우범소년’ 등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소년 성매매 알선자를 ‘웬푸보이’로 지칭하고,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펍푸보이는 성병, 아편과 같은 불결하고 병리적인 이미지와 함께 재현되었고, 미성년자의 성매매업 가담은 사회의 성도덕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대 사회는 대개 전쟁고아인 이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매음굴 소년들'로 타자화하였다.

그런데 1950년대 신문 사회면의 대표적인 악당 펍푸보이는 당대 소설에서는 보다 가련한 존재로 그려진다. 소설 속 펍푸보이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사창가에 몸을 의탁한 소년들로 자신이 손님을 대주는 성매매 여성과 유사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당대 비평에서 "현실의 암울한 "스포트·라이트" 밑에서 부동하고 있는 비극적인 소년들"을 그린 소설은 "내일의 애정으로써 현재의 부정적 양상을 비평하는 것이며 동시에 마지막 남은 생의 여백을 수호하려는 구체적인 "휴우메니즘"의 발정"으로 이해되었고,<sup>7)</sup> 이는 최근까지도 유효한 해석들이 되고 있다.<sup>8)</sup> 펍푸보이 재현은 단독 주제로 논의된 경우는 드물지만, 개별 작가론·작품론 속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타자인 '창녀'와 '펍프'에 대한 따뜻한, 환대의 시선을 보여"주는 소설,<sup>9)</sup> "유토피아적 공간에서 출발하여 현실로 돌아오는 성장소설"<sup>10)</sup>

7) 이어령, 「정유문화계 청평」상, 『경향신문』, 1957.12.12. 이 글에서 이어령은 손창섭의 「소년」, 「유몽」, 송병수의 「쫓리·킴」, 최일남의 「진달래」, 김광식의 「백호 꾸름」, 강신재의 「해방촌 가는 길」 등의 작품을 "모랄의 탐구" 경향의 소설로 함께 다루고 있다.

8) 조미숙은 추식의 「부랑아」에 대하여 "부랑아에 지나지 않는 한 소년이 한 사람을 사람으로 진정 아끼게 되면서 비로소 휴머니즘을 깨닫고 '인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선민서는 송병수의 「쫓리·킴」, 황순원의 「안개구름끼다」를 대상으로 1950년대 펍푸보이 재현에 주목하면서, 이들 소설이 "사회의 악으로 여겨지던 펍푸소년들을 온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이들을 일부 가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조미숙, 「1950년대 휴머니즘 문학-추식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21·22,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556면; 선민서, 「1950년대 펍푸소년과 온정적 재현의 의미-송병수의 「쫓리 킴」, 황순원의 「안개구름끼다」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80, 우리어문학회, 2024, 293면.

9) 홍주영, 「황순원 문학과 서정법의 은어 연구에 기인 타자성 탐구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65,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82면.

10) 안용희, 「송병수 소설의 유형적 특징과 변모 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 3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239면.

등으로 평가되었다. 소설 속 펌푸보이는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서 성역할을 습득·수행하고, 그녀들과의 이별(죽음 혹은 체포)을 계기로 사창가에서 벗어날 결심을 한다. 그런데 ‘매음굴 소년’이 사회 내부로 되돌아가는 서사는 반복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추방을 소년의 성장의 대가로 지불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휴머니즘적 해석은 그것의 이면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을 놓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보고는 펌푸보이를 재현한 소설들이 소년의 “남은 생의 여백을 수호”하기 위해 성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소년의 성장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성 관리 시스템이 국민국가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통치성의 원리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펌푸보이 서사의 패턴은 ‘매음굴 소년들’이 ‘남성 국민’으로 편입되기 위해 내면화해야 했던 규범과 성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고는 1950년대 펌푸보이 재현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업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성역할을 살펴보고, 펌푸보이와 성매매 여성이 성 관리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받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말에 이르는 성매매 정책과 그에 연동하는 성 시장 구조 및 행위자들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 속에서 등장한 펌푸보이 재현 소설들이 성매매 여성을 추방하고 소년만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는 서사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서사가 단지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창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 인식구조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 형성기 ‘정상사회’ 편입을 위해 마이너리티 소년에게 남성성의 내면화와 사창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사창의 확대와 펌푸(pimp)의 부상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함께 도입되었던 한국의 공창제는 1948년 2월 14일부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창 여성의 생계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상 공창제 폐지법은 “창기들을 밀매출을 하는 사창 여성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방침”이었으며, 행정 당국 역시 “매출을 묵인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sup>11)</sup> 그런데 이는 달리 말하면 공창제 폐지가 성매매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전신(轉身)과 업태 변화를 초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 서울 시내 공창 지대의 유곽은 적산 처리 문제와 결부되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체로 여관, 음식점으로 전환할 계획이었고, 창기들에게는 성병 치료와 구직 알선 등이 우선되었으나 현실적인 생활 대책이 되지는 못했다.<sup>12)</sup> 이때 공창 업소가 여관으로 전업하면서 창기를 식모로 채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자 공창제 폐지가 “양두구육격으로 간판만 갈아 부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sup>13)</sup> 이러한 반응은 공창제 폐지가 명목상에 그치는 데 대한 의심과 불안이기도 하지만, 실은 공창 폐지로 인한 성 시장 전반의 업종업태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창제 폐지에 따른 성 시장 행위자들의 변화는 단지 포주와 창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47년 2월 15일 『조선일보』 기사는 “서울의 흥등가는 107명의 포주와 507명의 창녀 2백여 명의 『나가이』들이 “전직 혹은 구직” 등의 “무한 번민 속에서 오늘을 최후로 모여드는 수천의 유흥객을 상대로 공공연한 죄악의 영업을 계속”<sup>14)</sup>하였다며 공인 유곽의 마지막 풍경을 전했다. 여기서 나카이(仲居)는 유곽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이들 역시 공창

11) 양동숙, 앞의 논문, 233-234면.

12) 「공창 폐지에 대비」, 『조선일보』, 1948.2.6.; 「공장 희망이 태반 그 다음은 화류계」, 『동아일보』, 1948.2.6.; 「공창 폐지 후의 대책」, 『동아일보』, 1948.2.20.

13) 「유곽은 여관으로 전향 창녀의 식모 전신」, 『동아일보』, 1946.7.24.

14) 「사창 방지에 만전」, 『조선일보』, 1948.2.15.

제 폐지로 인해 실직의 운명에 놓여 있었다. 일제에 의해 유곽이 도입되면서 조선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나카이라는 말은 식민지 시기 요리집, 음식집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업원을 가리켰다. 1920~30년대 용례를 살펴보면, 나카이는 종업원이자 호객꾼이기도 하였고, 여성에만 국한된 명칭도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 나카이는 작부, 집대부의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곳은 “나카이집”<sup>15)</sup>으로 지칭되었다.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매주점(賣酒店)에 소위 나카이를 두기 시작함으로써” “풍기문란으로부터 유인 강간 매음 기타 수많은 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나카이는 경찰당국의 “큰 두통거리”로서 “풍기 교정과 범죄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된다.<sup>16)</sup> 다른 한편, 1938년 신정유곽에서는 창기들이 나카이의 학대, 착취 등에 항의하며 동맹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sup>17)</sup>

나카이는 1930년대 산문이나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존재였다. 한설야의 「황혼」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등장하고,<sup>18)</sup> 장혁주의 「여명기」에서는 화대를 흥청하는 호객꾼으로, 성매매 여성과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었을 때는 여성을 보호하고 손님을 쫓는 관리자로 나타난다.<sup>19)</sup> 평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김남천은 평양 뒷골목을 묘사하면서 “삿잔꼴이나 엇전꼴은 십년 전 우리 중학시절에는 나카이술집(색주가집과 비슷하다)이 많은 곳이라 하여 무시무시하기도 할 뿐더러 그 골목을 지나다가 상급생이라도 만나면 수첩에 이름을 적히었다가 이튿날 철권제재(鐵拳制裁)를 받는 통에 쉬-쉬- 하고 가까이 갈 염도 못했다”라고 회고했다. 산문이 발

15) 「접종(接腫)하는 학원 불상사 생도 십여 명이 일려 단도로 대난투」, 『조선일보』, 1937.3.8.; 「음식점 영업 시간 일층 엄중 단속」, 『조선일보』, 1938.8.11.

16) 「매주점에 철추(鐵椎) 여자를 못 두게」, 『동아일보』, 1935.4.1.

17) “진상을 조사한 결과 창기들의 눈물겨운 비참한 생활과 주인의 학대상, 그리고 『나카이』(仲居)들이 창기의 틈을 무리하게 착취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몸에 따가운 잣속을 가하는 인권유린이 폭로되었으므로……(하략)”(「아음화의 기염 신정각호 창기들의 동맹파업 경찰조정·목적관찰」, 『조선일보』, 1938.11.23.)

18) 한설야, 「황혼」(120), 『조선일보』, 1936.6.26.

19) 장혁주, 「여명기」(제2부 81), 『동아일보』, 1936.8.24.

표된 1938년 즈음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도 “전통 있는 거리인지라 아직도 문 등 달린 무슨 관(館)이라 쓴 간판 앞에 『나카이』가 나서서 손님을 끌고 있었다”라고 썼다.<sup>20)</sup>

이상의 용례를 보건대, 나카이는 성 시장의 구성원이었으나 공창과 사창에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공인된 유곽에서는 창기를 관리하고, 팁의 일부를 떼어 가는 이들을 나카이라 불렀고, 사창가에서는 음식점주점의 종업원을 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성을 팔기도 했던 여성들을 그렇게 불렀다. 공통점은 식민지 시기 내내 요리점 이름으로 실린 ‘나카이 모집’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나카이는 주로 업소에 고용된 신분이었다는 것이다.<sup>21)</sup> 그런 점에서 공창 폐지는 유곽에 고용되어 있던 나카이의 실직 문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 널리 사용되었던 나카이라는 말은 해방 이후에는 그 용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폐창 직전 공창지대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과 행위자들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sup>22)</sup> 다만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공창제 폐지가 단지 여권 보호라는 이념이

20) 김남천, 「뒷골목 평양잡기첩」(1), 『조선일보』, 1938.5.28.

21) 예컨대, 다음은 1938년 8월 11일 『경성일보』에 난 나카이 모집 광고이다. “仲居募集 朝鮮女二十五歳以上四十歳まで経験者惑は高女校に學年以上程度の者十五名入用月收入十圓以上確保自筆履歷書持參すること 京城府觀水町二 朝鮮料理 國一館(나카이 모집 조선 여성 25세 이상 40세까지, 경험자 혹은 고녀에 학년 이상 정도인 자 15명 필요. 월수입 10원 이상 확보. 자필 이력서를 지참하여 경성부 관수정 21 조선요리 국일관) 이처럼 연령과 경력을 제한한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모집 광고만 실린 경우도 많다.

22) 해방기 여성 섹슈얼리티 재편과 공창제 폐지 관련 연구는 정책사, 제도사에 집중되어 있어 성매매업을 둘러싼 다양한 직군이나 행위자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본고는 우선 ‘나카이’, ‘나카이’, ‘나가이’, ‘仲居’의 용례를 네이버 뉴스라이브리(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등에서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나카이가 당대적 용어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회고나 소설에서 시대적인 용어로서 등장할 뿐이었다. 공창제 폐지와 관련하여 성산업의 경제 구조 변화와 직군 변화, 그 속의 사람들의 이동에 관해서는 추후 학제간 연구가 요청된다.

나 공창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식 유곽의 이식에서 비롯된 성매매 문화와 성 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연동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카이다.

공창제 폐지와 함께 나카이라는 직종이 사라졌다면, 사창의 확대와 함께 새삼 문제가 된 직종이 성매매 알선업이다. 흥미롭게도 공창제 폐지 후 밀매춘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들은 인력거 차부(車夫)다.

양풍(洋風)이 이 땅을 휩쓸지도 이미 삼년- 1948년도 일 년은 곱수머리와 같기도 마음과 모습 거리와 뒷골목은 여지없이 찌그러졌다고 할까 그러나 2월 14일! 이날은 땅에 떠러지고 짓밟히던 이 땅의 아릿다운 여권(女權)이 다시금 여성 자신의 손에 돌아가던 날이다 공창제도 폐지(公娼制度 廢址)의 날- 이날은 오로지 2천여 명의 창녀만이 아니라 1천 5백만 여성의 영원히 기념할 날인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의 눈물과 피로써 싸워 이루어진 진주(眞珠)와 같은 여권회복도 일장춘몽인 양 거리에서 뒷골목에서 백주(白晝)에 또 으스스푸레한 어둠 속에서 여성 자신의 손으로써 포기되고 있지 않은가

「양갈보」라는 새로운 명칭은 여성들의 일대 치욕이었으며 「깜둥이」 고아의 발생 누른머리 「튀기」의 출현 이것은 모두 여성 자신이 저절러 놓은 여권포기였던 것이며 매일 수 건 한달에 삼십여 건씩 뒷골목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여경(女警)에 피검되는 현상 이것은 대책이 없이 공창제도폐지-인용자를 실시한 당국의 죄과에 대한 변명과 생활고 운운하는 변명도 있으려니와 여권 포기의 현실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중략) 12월 12일 풍기의 순화(醇化)를 위하여 당국에서는 기생 여급들의 가무(歌舞)를 금하였다고 하여 그들의 노래소리가 길가에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기할 수 있으리라 저무러가는 무자년의 뒷골목에는 여전히 인력거가 즐비하게 노여있다 창녀들에게 안내역을 하는 것은 주로 이들인 것이다<sup>23)</sup>

23) 「무자(戊子)의 탄(嘆) 풍기편 한심한 여권 포기, 『경향신문』 1948.12.24.

인용문은 공창제 폐지령이 시행된 지 십 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성 시장의 복합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선 주목하고 싶은 점은 뒷골목의 준비한 인력거가 사창으로 흘러간 여성들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창제 폐지 직후부터 제기되던 문제로 1948년 3월 29일 “서울중로서는 사창을 박멸하는 데에 악질 인력거(人力車) 차부들을 단속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여, “관하 일백칠십여 대 인력거 차부(車夫)들을 일제히 소집하고 박주식(朴朱植) 서장은 사창 박멸에 차부들의 협력을 바라는 동시에 만일 이후 사창에 안내할 때는 예년안내할 때는 인용재 공창폐지법에 의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sup>24)</sup> 그러나 경찰 서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력거꾼의 성매매 알선은 1950년 초까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sup>25)</sup> 이는 공인된 유곽이 사라지고 사창이 확대되자 알선자의 역할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들은 ‘양갈보’라 불리는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이다. 해방 직후 전재동포의 귀환으로 인구는 급증했지만, 이들을 수용할 사회적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빈곤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았고, 여기에 더해 공창 폐지로 생계 수단을 잃은 여성들까지 사창으로 유입되었다. 이때 성 시장의 새로운 구매자로 등장한 이들이 바로 미군이다. 미군은 남한 성인 남성 인구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았지만,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젊은 남성이었으며 구매력이 훨씬 컸기 때문에 핵심 구매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sup>26)</sup> 이는 공창 폐지 운동이 진행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사창, 특히

24) 「사창들 압재비 인력거꾼 단속」, 『조선일보』, 1948.3.30.

25)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서 이들이 제일 많이 운집하여 있는 곳은 종로 삼가 부근 즉 훈정동이고 다음이 익선동 봉익동 근방이라 하며 들어서 있는 인력거꾼을 통해서 중매되고 있다는 것이다.”(「매신(賣身)은 호구 궁여책 직업 알선으로 선도 구제 시급」, 『동아일보』, 1949.11.21.); “차길 가에는 의례히 인력거가 있고 취객들 인력거꾼을 잡고 수근수근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뚜쟁이의 비밀거래”(「휴지통」, 『동아일보』, 1950.1.21.)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27)</sup> 실제 성 관리 정책의 측면에서도 미군정과 남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 정책을 내세웠지만, 미군 상대 성매매는 묵인·관리의 정책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때 미군을 상대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미군과 직접 거래하기도 하였으나, 일명 ‘뚜쟁이’라 불리는 알선자를 통해 거래하기도 했다. “라이젠트한 뚜쟁이가 서튼 영어로 “예스오케이” “노-오케이”며 값을 따지는 모양이다. 드디어 합의가 된 양 여섯 명의 양키를 다리고 뚜쟁이가 청년은 이태원 쪽 언덕으로 방향을 바꾼다.”<sup>28)</sup> 앞서 인력거꾼들이 손님을 사창으로 안내하는 전통적인 알선자 역할을 했다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 시장에서는 “영어 깨나 한다는 젊은 사나이들이 전문적으로 여자를 외객에게 소개해주는”<sup>29)</sup> 알선자가 되었다. 그런데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대거 발생하자 성매매 알선업에 소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해방 직후부

26)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앞의 논문, 52면.

27) 1947년 1월 7일 목포발 서울행 열차에서 벌어진 미군의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남한에서는 미군의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위안’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둔군인에 대하여서는 위안시설을 적의히 제공하여 이 방향으로 유도하고 집중케 하여 시가로의 범람을 방지하는 하등의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여적」, 『경향신문』, 1947.5.1.) 참고로 1947년은 공창 폐지령이 공포된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서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이 제기되었으나 끝내 삭제된 해이기도 하다. 일본군/미군 ‘위안부’의 단절과 연속, 그리고 공창 폐지와 사창의 확대 등 새로운 국민국가 형성의 중요한 통치 원리로 작동한 성 관리 시스템과 여성 섹슈얼리티의 재배치는 보다 총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해방 직후 일본군 ‘위안부’ 업자 처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지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7-39면.

28) 오소백, 「거리의 정보살: 난도(難都) 서울의 지하 정조 경매장」, 『신천지』 1948년 10월호, 신천지사, 1948, 65면; 박정미, 앞의 논문, 53면에서 재인용.

29) 『제일신문』, 1947.4.30.; 이임하,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과 섹슈얼리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 연구단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 2004, 278면에서 재인용.

터 1950년대까지 정부는 부랑아를 '단속'하고 '수용'하여 거리에서 '일소'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나마 마련된 시설도 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이들이 탈출을 감행했다.<sup>30)</sup> 부랑아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왕초패에 걸려 구걸을 하거나 슈샤인보이(구두닦이), 하우스보이(미군 장교 관사의 집안일을 하는 소년), 꽃제비(소매치기) 등 여러 일을 전전하였고, 그러다가 성 시장까지 흘러들어왔다. 소년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뚜쟁이' 혹은 '웬푸(pimp, 성매매 알선자)'가 되었다.

웬푸는 뚜쟁이라는 말과 함께 쓰였는데, 뚜쟁이가 어느 영역이든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였다면, 웬푸는 성매매 알선에 한정하여 쓰였다. 일본식 제도가 물러가고 미군이 성 시장의 주요 고객이 되면서 성매매업 관련 직업 이름도 영어식 표현이 대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웬푸는 처음에는 미군을 상대로한 성매매 알선자를 일컬었겠지만, 1950년대 기사나 신문에서는 성매매 알선자 전반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된다. 물론 웬푸에는 소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취직을 시켜주다며 시골 소녀를 데려와 매음굴에 판 중년 여성<sup>31)</sup>, 미군에게 여성을 소개한 뒤에 강도폭행을 저지른 이십대 청년들<sup>32)</sup>도 웬푸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1950년대 부랑아 정책과 더불어 '웬푸보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구성

30) 박홍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가 '비정상성'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계보학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와 굶주림을 면하고자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이 구두닦이, 냄마주이, 구걸, 소년행상으로 삶을 꾸리거나 절도·소매치기 등의 범죄로 생계를 이어갔고, 당시 사회는 이들을 부랑아라고 부르면서 사회문제로 여겼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충분한 시설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보호'를 유일한 대책으로 삼았고, 이로써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정부 단속과 시설 수용-부랑아 탈출'이 반복되기에 이른다. 이에 박홍근은 1950년대를 '구금의 시대'로 평가한다. 박홍근,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 : 냄마주이 국가동원의 계보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6면.

31) 「시골 여(女) 유인 매매 웬푸 2명을 구속」, 『평화신문』, 1959.8.7.

32) 「미병 유인 불화(弗貨) 강탈 도주 세 『웬푸』 청년이 단도로 위협」, 『동아일보』, 1958.8.3.

된다. 펌푸보이는 소매치기, 불량배 등과 함께 “거리의 줌”,<sup>33)</sup> “범죄의 온상”<sup>34)</sup> 등으로 지칭되었고, 우범소년으로 강력범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sup>35)</sup> 펌푸보이는 왕초패, 구두댁이, 신문팔이 등을 전전하다가 중국에 이른 소년들, 즉 성병을 앓고 아편까지 손을 대는 아이들로 그려졌다.<sup>36)</sup>

전란이 낳은 최악의 하나로써 이 나라의 장래를 질머질 소년들이 구두댁이로 혹은 불량아로 혹은 “폐口푸뽀이” 뚜쟁이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유엔”군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노릇을 하고 물품을 강매하는가 하면 만년필을 비롯한 귀금속 지갑을 절취하여 범행의 소굴이라 해도 아닐 정도의 실정에 놓여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략)

이들 “폐口푸”들은 대개 십칠, 팔 세부터 이십세 전후의 소년들로서 한 패가 사, 오인씩 짝을 짓고 있으며 나어린 “슈사안보이”들을 부하로 포섭하고 신사(紳士)연한 수명의 어깨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폐口푸” 한 사람의 수입이 하루 아삼천 환이 된다고 하며 이들은 이러한 과분의 수입을 가지고 방탕과 향락을 위하여 술도 마시고 외도도 하며 “폐口푸”들의 대부분이 성병을 보균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7)</sup>

인용문에 따르면, 펌푸보이는 패거리를 이루어 다니면서, 미군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뿐 아니라 물품 강매, 소매치기도 겸하고 있다. 소년들은 “낮이면 대체로 구걸이요 도회지의 불량아동들은 밤이면 불량여관 안내 아니면 양부인 뚜쟁이로 변하”기도 하고,<sup>38)</sup> 상경하는 젊은 여성을 유인하

33) 「백사십 명 적발 거리의 줌 어깨 등」, 『동아일보』, 1955.5.29.

34) 「범죄의 온상, 서울역 일원」, 『조선일보』, 1956.5.14.

35) 「우범소년 『리스트』 작성」, 『동아일보』, 1959.7.16.; 「강력범 단속 한 층 더 강화」, 『조선일보』 1960.4.30.

36) 「해방 십년의 특산물 (7) 알바이트 소년」, 『동아일보』, 1955.8.22.

37) 「방입 못 할 불량소년들 뚜쟁이·소매치기 등으로 전락일로」, 『경향신문』, 1953.8.18.

여 식모나 뒷골목의 밀매음으로 안내하고 소개비를 받기도 한다.<sup>39)</sup> 유곽에 고용되어 호객을 했던 나카이와 달리, 펌푸보이는 소속과 고정적인 일 없이 호구를 마련하기 위해 그때그때 가능한 일을 혼자서, 또는 께거리와 함께 합법과 범법을 넘나들며 했다. “사면을 계기로 해서 사창이 늘고서 불량소년이 늘어 가며 여러 가지 사회불안상태”<sup>40)</sup>가 조성되었다는 당시 국회의원의 진단처럼 펌푸보이는 사창의 확대와 함께 형성된 집단, 다시 말해 폐창 이후 부상한 성매매 알선업에 흘러 들어온 ‘프리랜서’ 소년들이었다. 펌푸보이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사회적 구호도 받지 못했던 전쟁의 피해자이자 취약계층의 아동이었고, 동시에 성매매를 알선하여 소개료를 취하고 미성년 여성을 속여 성 시장에 파는 폭력의 수행자였다.

### 3. 펌푸보이 서사의 규범화와 성매매 여성의 추방

이와 같은 사회상 속에서 1950년대 소설에 펌푸보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추식의 등단작인 「부랑아」(『현대문학』, 1955.6)에는 손님을 하숙집으로 데려오거나, 막 상경한 시골뜨기를 유인하여 주머니를 터는(빨기 새끼 잡기) ‘부랑아’ 박달이 등장한다. 박달이 좋아하는 여주색시는 하숙집의 손님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으로, 최근에는 어떤 청년에게 재산을 도둑맞고 병까지 앓아 몸져누워 있다. 요즘 박달이는 여주색시를 돌보며 “사람의 살결이 그렇게 따뜻한 것인 줄”<sup>41)</sup> 비로소 깨닫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폐口푸”노릇하던 소년들이 그대로 매음녀들과 어울려 범죄의 씨를 뿌리기를 예사로 하게 되고 항용 그들과 함께 “아편” 등 마약에 손을

38) 「사만 고아의 앞날은 어찌되나」, 『조선일보』, 1953.9.15.

39) 「범죄의 온상, 서울역 일원」, 『조선일보』, 1956.5.14.

40)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1회 35차, 1955.11.5., 19면.

41) 추식, 「부랑아」, 『현대문학』 1955년 6월호, 현대문학사, 1955, 213면. 이하 작품명과 페이지만 표기.

가기까지 하고 마침내는 소년 마약 중독자가 되어 폐인이 되고”<sup>42)</sup> 만다는 식의 신문 사회면의 서사와는 확실히 다른 의미를 발생시킨다. 어려서부터 거지 소굴 왕초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하숙집 호객꾼으로 전전한 박달이 성매매 여성에게서 어머니나 누나의 사랑을 느끼는 대목은 비록 그가 타인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더라도 그 역시 취약하고 소외된 미성년자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주색시에 대한 박달의 애정을 모성에 대한 갈구로만 해석하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섹슈얼한 측면이 있다. “박달이는 매일 밤 체모도 없이 여주색시 품에 안겨서 자는 것이 여간 포곤하지가 않았다. 박달이는 저의 어머니 젖가슴도 그렇게 뺏이얹고 보드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주색시가 눈을 사르르 감으며 허리를 꿰어지라고 껴안아 주면 간지러운지 시원한지 분간 할 수가 없었다. 누나가 있었다라면 진작부터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sup>43)</sup> 박달은 여주색시를 어머니나 누나에 빗대지만, 다분히 성적 뉘앙스를 풍기는 두 사람의 행위를 남매나 모자 관계에서 있을 법한 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서술에는 어머니나 누나를 성적 대상으로, 그녀들의 가족 내 역할을 성적인 행위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그릇된 성관념 위에서 박달과 여주색시의 관계는 유사(pseudo) 가족 관계로 재현된다. 물론 소설은 박달과 여주색시를 ‘순수한’ 관계로 남겨 놓기 위해 성적 행위의 한계선을 남겨 놓는데, 그것은 모순적이게도 펌푸보이와 성매매 여성 사이의 섹스(의 거래) 금지이다.

박달이는 여주색시와의 관계가 학생색시가 쌍쌍이를 대하는 것과는 닮다고다르다고 인용재 생각했다. 평양아주머니들 집에 새로 온 색시를 「학생색시」라고 부른다. 남영동에서 양갈보 노릇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42) 「해방십년의 특산물(7) 알바이트 소년」, 『동아일보』 1955.8.22.

43) 「부랑아」, 213면.

증인(두꺼비)이 있는데도 썩성이란 놈은 그 여자가 대학생이라고 손님들 뿐만이 아니라 「웍프」들 끼리도 속인다. 썩성이란 놈은 그 색시를 손님한테 소개하고서도 소개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아주 안 받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받는 것보다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한다. 썩성이는 낮에 그 색시 방에 가서 「시간」을 놀다 온다는 것이다. 썩성이는 그것이 큰 자랑이었다. 여주색시가 박달이를 꼬옥 껴안고 자고 가끔 숨이 꺾꽂 맥히도록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이 학생색시처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싫었다. 박달이는 여주색시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가 좋아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박달이는 여주색시가 그저 좋았던 것이다.<sup>44)</sup>

썩성이는 소개비를 안 받는 대신 학생색시의 성을 취하므로 사실상 이들은 성을 거래하고 있다. 박달이는 그들에 견주어 자신과 여주색시의 관계를 순수한 것으로 변별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옷을 벗은 채 잠든 여주색시를 보고 “그만 박달이는 일을 저질렀다.”<sup>45)</sup> 그러자 여주색시는 박달이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를 낸다. 박달이 보기에 “사실 상무나 또 다른 손님한테 하던 일을 생각하면 여주색시가 그렇게까지 노할 일이 아니다.”<sup>46)</sup> “돈만 가지고 따진다 해도”<sup>47)</sup> 박달은 그간 병석에 누운 여주색시를 적지 않게 도와주었다. 박달은 여주색시의 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금기는 박달의 이해나 의지가 아닌 소설 세계의 규범이자 서사적 장치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뽀빠이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는 (다른 성적 행위는 되지만) 섹스(의 거래)만큼은 금지되고, 이를 지키는 한에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타자가 아닌 일반 사회의 정상가정과 유사한(pseudo) 가족 관계로 남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랑아」는 사회적

44) 「부랑아」, 213면.

45) 「부랑아」, 214면. 해당 대목은 ‘일을 저질렀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단지 시도를 했다는 것인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46) 「부랑아」, 214면.

47) 「부랑아」, 214면.

으로 타자화·악마화되어 있는 펌푸보이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소외된 소년의 순수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펌푸보이에게 규범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에게 순수함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연민의 시선을 만들어 내는 텍스트다. 실제로 박달은 금기를 확인한 뒤에 규범을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달이는 여주 색시가 병만 낫는다면 저도 「뿔기새끼」를 잡지 않고 썩싱이나 두꺼비 같은 놈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sup>48)</sup>

흥미로운 점은 펌푸보이와 성매매 여성을 다룬 다른 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규범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송병수의 「썩리·킴」(『문학예술』, 1957.7)의 썩리 역시 「부랑아」의 박달과 비슷하게 왕초 소굴, 고아원 등을 전전하던 소년이다. 썩리는 딱부리와 함께 미군 부대 근처인 용주골에 이르렀는데, 딱부리는 운이 좋게 캡틴의 하우스보이가 되었고 썩리는 “양키들에게 양갈보나 부쳐주고”<sup>49)</sup> “밖에서 엠피가 오나 망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sup>50)</sup>으면 되는 펌푸보이가 되었다. 썩리는 갑자기 부자집 도련님이나 된 듯 구는 딱부리가 알밋지만, 그에게도 딱부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썩리가 “매일밤 저 색씨하고 같이”<sup>51)</sup> 자는 것이다. “자식 부러울 것도 많지! 하지만 밤마다 한 스리핑씩 속에서 꼭 끼어 자지만 그런 짓은 안했다. 그저 따링누나가 꼭 끼어 안아 주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주물을 수 있는 고 몽실한 젓꼭지가 썩리는 좋았다. 딱부리놈이 제아무리 썩텐한테 귀염을 받는다 해도 아직 고런 맛은 모를 것이다.”<sup>52)</sup>

썩리가 말하는 “고런 맛” 역시 모성의 대체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성애화된 것이지만, 그것은 “그런 짓”은 하지 않는 대가로 유사 모성으로 그

48) 「부랑아」, 214면.

49) 송병수, 「썩리·킴」, 『문학예술』 1957년 7월호, 문학예술사, 1957, 13면. 이하 작품명과 페이지만 표기.

50) 「썩리·킴」, 17면.

51) 「썩리·킴」, 20면.

52) 「썩리·킴」, 20면.

려진다. 또한, 「쏘라킴」은 주인공 쏘리를 지나치게 유아적인 모습으로 그리면서 펌푸보이와 성매매 여성 사이의 애정이 순수한 것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러나 쏘리의 생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친진함은 어색한 데가 있다. 쏘리는 미군들이 술을 먹고 포르노 사진을 돌려보며 노름을 하는 장소에서 라디오의 어린이 방송극을 들으며 “저 산 넘어 햇님이 숨바꼭질 할 때”를 열심히 따라부르고, “따링누나처럼 예쁘게 생겼을 선생님”을 상상한다. 기지에서 쫓겨나는 “재수 없는 날은 일찍암치 집(땅구덩이)에 가서 따링누나에게 〈보물섬〉이나 〈백설공주〉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장땡”이라며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보인다.<sup>53)</sup> 청계천부터 용주골까지 쏘리와 함께 한 딱부리가 미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포르노 사진을 돌려보는 열네 살의 ‘불량소년’이 되는 동안 쏘리는 순진한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물론 쏘리의 순수성은 그의 친진함만으로 보증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펌푸보이와 성매매 여성 사이의 금기가 작동한다. 딱부리는 미군이 따링누나와 ‘노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돈은 얼마라도 벌 테”니 한 번 놀자고 한다. 이에 화가 난 따링누나는 딱부리와 몸싸움을 벌이고, 그 화는 쏘리에게까지 미친다. 따링누나는 그간 모은 달러 몽치 가운데 쏘리 몫을 떼어주면서 갖고 가라고 호느낀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따링누나가 이렇게 화를 낸 일도 없었고, 이렇게 우는 것도 처음 봤다. 쏘리는 그저 맥도 없이 슬프기만 했다.

「누나야 잘못했어, 다신 안 그렇게 우지마」하면서 엉결에 같이 쓰러져 울고 말았다. 뒤틀 잘못 했다는 것인지 저도 모르지만 그저 이렇게 같이 울어야만 될 것 같아서였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

53) 「쏘리·킴」, 18면.

「애야 우지마,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잉. 우리 이젠 서울 가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자잉!」하고 달래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까 따링누나가 그전처럼 두 팔로 꼭 껴안아 주고 있다. 그래도 쏘리는 얼마라도 마냥 울고만 싶다.<sup>54)</sup>

쏘리와 따링누나 사이에 금지된 “그런 것”은 쏘리의 친구인 딱부리가 시도하고, 쏘리는 딱부리를 대신하여 따링누나에게 “다신 안 그럴” 것이라 약속한다. 「부랑아」의 박달과 마찬가지로 쏘리의 속죄 역시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속죄는 효과를 발휘한다. “다신 안 그럴” 것이라는 약속, 즉 펌푸보이가 (유사)누나를 상대로 섹스(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서울 가서 둘이 함께 살자는 미래의 희망을 개시한다. 인용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인 “따링누나하고 「저 산 넘어 했님」을 신나게 부르는 꿈” 속에는 “빨갱이가 쳐들어왔을 때 다락에 숨어 있다가 잡혀간 아버지도” “애기 젓먹이다가 폭격에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 죽은 엄마의 얼굴도” 등장한다. 이는 전쟁고아인 쏘리의 안타까운 처지를 부각함과 동시에 따링누나가 전쟁으로 잃어버린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설의 표면에 나타나진 않지만 쏘리가 “다신 안 그럴 것”을 약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에는 매일 밤 따링누나와 슬리핑백에 꼭 끼어 자며 느끼는 “고런 맛”도 포함되어 있다.

유사한 패턴이 황순원의 「안개구름끼다」(『사상계』, 1959.1)의 파죽과 명자, 송병수의 「분애(忿恚)」(『자유문학』, 1960.10)의 짹짹이와 애순에게서도 발견된다. 펌푸보이들은 마음에 둔 여성에게 “돈푼이 있음직한 손님만을 골라서 데려다 주”<sup>55)</sup>기도 하고, 반대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부러 손님을 끌어들이지 않기도 했다.”<sup>56)</sup> 이들 소설 역시 펌푸보

54) 「쏘라킴」, 21면.

55) 황순원, 「안개구름끼다」, 『사상계』 1959년 1월호, 사상계사, 1959, 403면. 이하 작품명과 페이지만 표기.

이와 성매매 여성이 서로 성애적인 행동과 감정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인물들로 하여금 “우린 그러지 말구 지내자”<sup>57)</sup>라고 약속하게 함으로써 둘의 관계를 순수한 애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소년들은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파쪽은 “인제 명자의 빛을 다 갚게 되든 어디든 딴 곳으루 가서 서루 의지하구 살 생각”<sup>58)</sup>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기는 매음굴처럼 일반 사회의 ‘외부’(“어디든 딴 곳”)에서 소년들이 살아갈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을 사회 ‘내부’로 진입하게 하는 방법은 못 된다. 사실 파쪽이나 짤짤이가 “그러지 말구 지내자”라는 그녀들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펌푸보이가 사는 집에는 방방마다 성매매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그 짓이 하고 싶으면 아무 때고 순자나 애자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다.”<sup>59)</sup> 게다가 의도치 않게 애순은 짤짤이가 펌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게 붙들어두는 역할을 한다. “작년까지도 짤짤이나 다름없이 손님 끌어주고 얻어먹던 두꺼비는 “주인 여편네와 지독히 싸움하고 쫓겨나서는 …… 직업소년학교”에 가더니 “신문에 난 글까지도 술술 내리 읽”게 되었다.<sup>60)</sup> 짤짤이에게도 펌푸 생활을 청산할 계기가 필요하지만, “애순이와 꼬옥 끼어안고 자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한지”<sup>61)</sup> 그는 포주의 집을 떠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정된 귀결로서 펌푸보이를 사회 내부로 계도할 수 있는 최종 심급은 성매매 여성의 추방이다. 이상의 소설에서 펌푸보이들이 어머니나 누나처럼 의지했던 모든 여성은 죽거나(「부랑아」, 「분예」, 「안개구름끼다」) 단속에 걸려 체포된다(「쫓라킴」). 「분예」의 애순은 사흘 전에 아이

56) 송병수, 「분예」, 『자유문학』 1960년 10월호,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60, 71면. 이하 작품명과 페이지만 표기.

57) 「안개구름끼다」, 404면.

58) 「안개구름끼다」, 404면.

59) 「분예」, 72면.

60) 「분예」, 68면.

61) 「분예」, 71면.

를 낳고 누워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 혼자만 겨우 빠져나왔다. 째짤이가 뒤늦게 도착하여 갓난아기를 불구덩이에서 안고 나왔으나, 아기는 이미 죽은 뒤였고 애순도 곧이어 숨을 거둔다. 그러나 째짤이가 슬픔에 젖을 틈도 없이 포주 여자는 돈 কে짜를 구하러 간 줄 알았더니 그깟 죽은 아이를 안고 나왔다고 화를 낸다. 이에 째짤이는 온몸이 떨리는 분노, 즉 이 소설의 제목인 ‘분애(忿恚)’를 느끼며 포주 여자에게 달려든다. 포주 여자를 향한 분노의 응징은 째짤이가 “정녕 더는 못살 이놈의 곳을 떠나기 전에 먼저”<sup>62)</sup> 해야 할 일이었다. 애순의 죽음은 째짤이에게 이곳을 ‘못살 곳’이라 각성하게 하고 떠날 수 있게 한다. 이는 「부랑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주색시는 병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고, 박달은 여주색시가 죽은 뒤 “떠나기로 작정했다. …… 그곳을 떠나야만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63)</sup> 박달은 여주색시와 “둘이 어디 머언데 가서 살” 미래를 꿈꿨지만, 그녀가 죽고 나서는 “머언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틈새에 가서 꼬옥 끼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다.<sup>64)</sup>

이와 같은 공통적인 서사 패턴은 “사창이 늘고서 불량소년이 늘어 가며 여러 가지 사회불안상태”가 야기되고 있다는 당대 담론의 자장 안에 이들 소설이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사창이 늘어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해방 직후의 빈곤과 전쟁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붕괴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았고, 여성들의 생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한 채 명분만 앞세운 공창제 폐지는 사창의 확대를 빚었다. 이렇게 확대된 성 시장에 전쟁고아 소년들이 유입되면서 펌푸보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 소설은 밀매음 지대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펌푸보이의 안타까운 사정을 가시화하고 마이너리티 사이의 감정적 유대감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은 성 시장의 구조 속에서 마이너리티가

62) 「분애」, 74면.

63) 「부랑아」, 215면.

64) 「부랑아」, 215면.

서로 주고받는 폭력과 착취를 삭제하고, 기성 사회의 규범에 입각하여 이들의 삶을 연민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추방을 통해 소년이 사회로 진입하는 귀결을 보여줌으로써 성매매 여성만 사라지면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인식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 성 시장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모순과 중층적인 불평등은 소거하고 사창 여성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 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있어 통치 당국은 외부자가 아니었다. 성매매 시장의 형성이 남성 노동자 및 군인의 신체를 관리하고 정상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통치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원론적인 논의는 생략하더라도, 미군/UN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우방국 병사를 '위안'하고 일반 가정 부녀를 보호하며 나아가 외화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쏘리가 지나치게 유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사실 그는 꽤 능숙하게 미군과 거래하는 독립적 경제주체다.<sup>65)</sup> 쏘리는 “몇번씩 따링누나하고 붙어먹은” 미군들의 환대를 받으며 캠프를 드나들고, 전방에서 처음 온 미군에게 “색씨 맛을 들여놓”고 “슬금슬금 잘 귀 삶”아 “바카사탕이랑 레이송이랑 마구” 얻어낼 줄도 안다.<sup>66)</sup> 따링누나에게 안달이 난 흑인 병사 부르도크가 “십팔라짜리 두 장을 꺼내”는 걸 보며 “이십 팔라면 여너 양키한테 한번 받는 돈의 네 곱이나” 된다는 걸 계산하고, 그러나 “따링누나가 이 검둥이만은 딱 질색이니 「오케」 할 순 없”다고 하다가도 “진작부터 꼭 살려고 별르던 야광시계”를 보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한다.<sup>67)</sup> 이러한 쏘리의 경제활동은 ‘미국-기지촌 여성-한국’이라는

65) 쏘리의 경제활동을 진작에 알아본 이는 이발사 짚뚝이었다. 짚뚝이는 양키 장사를 시작하려고 달리가 모이는 곳을 살피고 있었기에 경제주체로서 쏘리를 알아본 것이다. “놈이 짚뚝 짚뚝 따라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 양갈보하구 삼칠빠이로 나뉘 먹느냐, 고부고부로 먹느냐」는 똥똥지 소리를 한다. 말없이 쳐다만 보니까 놈이 또 「너 고부고부로 먹는다면 오백팔라는 모았겠구나. 내 원팔라에 두장(이만 원)씩 줄테니 바꾸자」하며 징글맞게 싱글거린다.”(「쏘리·킵」, 18-19면.)

66) 「쏘리·킵」, 13면.

‘동맹 속의 섹스’<sup>68)</sup>에 누락된 ‘알선자’가 존재함을 환기한다. 누나에게 미군을 대주는 천진한 알선자 쏘리는 자국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산업자원화하여 달리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한국 정부와 상동적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용주골의 펌푸보이인 ‘쏘리’는 1960년대 본격적으로 여성의 성을 산업자원화하는 한국 정부, 즉 성매매 알선 국가의 ‘유년’인 셈이다.

그리고 보면 앞서 언급한 소설들 가운데 「쏘라킴」의 따링누나만이 죽음이 아닌 형태로 소설의 무대에서 추방된다. 달리를 탐낸 찢뚝이의 밀고로 따링누나는 헌병에 체포되는데, 그녀는 붙들려 가면서도 쏘리에게 이렇게 외친다. “애- 서울로 오라잉. 피엑쓰 앞에서 만나자잉-, 저기 구덩이에 있는 팔백팔라몽치 꼭 가지고 오라잉-, 꼭…….”<sup>69)</sup>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쏘리와 딱부리는 왕초 소굴과 고아원을 도망칠 때처럼 기지춘 밖으로 달려 나간다. “이젠 이곳 양키부대도 싫다. 아니, 무섭다. 생각해보면 양키들도 무섭다. 부르도크같은 놈은 왕초보다 더 무섭고, 엠피는 교통순경보다 더 미웁다. 빨리 이곳을 떠나 우선 서울에 가서 따링누나를 찾아야겠다.”<sup>70)</sup> 「쏘라킴」 또한 성매매 여성이 소설 세계에서 추방된 뒤 펌푸보이가 매음굴을 떠난다는 결말을 공유한다. 그러나 죽은 누나들과 달리 따링누나는 재회를 요구했다. 따링누나를 다시 만나려면 쏘리는 서울 PX 앞으로 가야 한다. 그곳은 “부랑소년들의 범죄의 온상”<sup>71)</sup>이자 미군에게 호객하는 펌푸보이들로 넘쳐나던 곳이다. 쏘리와 따링누나가 재회한다면, 그들은 용주골에서처럼 펌푸보이와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소설들처럼 성매매 여성을 죽음으로써 완전히 세계에서 추방하

67) 「쏘리·킴」, 16-17면.

68) 캐서린 H.S. 문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라는 국제지형 속에 존재하던 기지춘 여성이 단지 국제 정치학의 희생자가 아니라 ‘역할자’(player)이기도 했다는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캐서린 H.S. 문,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87면.

69) 「쏘리·킴」, 22-23면.

70) 「쏘리·킴」, 25면.

71) 「PX와 부랑소년」, 『동아일보』, 1954.2.27.

지 않고 후일을 기약하도록 하는 결말은 「쏘리·킴」이 미군 상대 성산업을 '필요약'으로 여기던 당대 담론의 자장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헌병에게 잡혀가면서 서울 PX에서 만나자고 했던 따링누나의 마지막 외침은 1960년대 공고화되는 기지촌과 PX 경제를 예고한다.

#### 4. 규범적 서사의 균열, 펌푸보이의 남성성 획득

성매매 여성의 추방을 통해 펌푸보이가 사회질서 내부로 진입한다는 공통적인 서사 패턴은 사상을 사회의 악으로 여기면서 문제의 원인을 '타락한 여성'의 탓으로 돌렸던 사회적 인식과 지식인의 도덕관념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때 황순원의 「안개구름끼다」는 지식인의 규범적 펌푸보이 서사가 어떻게 현실을 빚나가는지, 현실과의 간극을 인지하면서도 펌푸보이 서사에 투영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도덕관념이 무엇인지 메타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텍스트다. 「안개구름끼다」의 서술자 '나'는 작가 황순원을 환기하는 소설가로 언어학자 정군의 소개로 펌푸보이 파쪽을 만난다.<sup>72)</sup> 파쪽 역시 그가 손님을 대주는 성매매 여성 명자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둘 사이에 "다른 교섭은 없었다"고 강조한다.<sup>73)</sup> 게다가

72) 홍주영은 경희대 국문과 선후배 교수 사이였던 황순원과 언어학자 서정범의 활동 궤적을 실증적으로 살피면서, 황순원의 소설 「안개구름끼다」, 『일월』에 나타난 은어가 서정범과의 교류 속에서 집필된 것임을 밝힌다. 홍주영은 소설 속에서 언어학자 정군이 소설 줄거리를 제안하는 장면을 지적하면서 "이는 마치 현실에서의 황순원(나)과 서정범(정군)의 관계를 그대로 옮긴 듯하다"라고 평가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되, 소설 속 서술자 '나'와 언어학자 정군의 대화를 통해 지식인의 펌푸 재현이 현실을 어떻게 비껴가며, 그 재현에 투영된 지식인의 도덕적 요구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홍주영, 앞의 논문, 81면.

73) "명자 편에서도 파쪽을 귀여워 해, 긴밤 손님이 있는 날만 빼놓고는 언제나 한 이불 속에 재웠다. 그러나 다른 교섭은 없었다. 그저 명자는 파쪽의 돌기물을 만지며, 참 이쁘게 생겼다고 속삭이는데 그쳤고 파쪽은 파쪽대로 그네의 젖만을 만졌다." (「안개구름끼다」, 403면.)

파쪽은 “명잘 누나처럼 친구”<sup>74)</sup> 그간 번 돈을 모두 명자에게 맡겼다. 그러나 ‘나’와 정군이 파쪽을 만났을 땐 명자가 파쪽의 돈까지 들고 도망간 뒤였다. 파쪽은 명자가 서울 어딘가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명자가 있을 법한 곳을 뒤지고 있다고 말한다.

‘나가 정군의 취재를 따라나선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정군이 ‘나’에게 파쪽을 소개한 건 “소년의 신상에 일어난 사연을 내게 들려주고 싶어서”,<sup>75)</sup> 그러니까 “지금 그애 애길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한번 쓰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다.<sup>76)</sup> ‘나는 그다지 내키지 않아 하는 데 반해, 오히려 정군이 파쪽의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정군은 자신이 나서서 소설의 즐거리를 제안하기도 한다.

「아마 파쪽이 오늘 밤 안으루 그 명자라는 창널 찾아내구야 말 겐니다. 널 선생님과 닳에 만나자구 한 것두 그런 자신이 있기에 한 거죠. 그렇지만 말예요, 그걸루 소설을 쓰신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명자를 아주 도망시켜서 영 못찾게 합니다. 물론 명자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파쪽과의 정의를 저바린 셈이 되지요. 그런데 명자는 어딜 가나 파쪽을 못잊어 합니다. 그래 언제나 화분에다 파 한 뿌리를 심어 놓구 가꿉니다. 그리고 왜 파는 재미있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파쪽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걸 지금 언뜻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입니다마는……」

본시 소박하고 순수한 낭만성을 지니고 있는 정군은 내 창작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이런 말까지 해주는 것이었다.<sup>77)</sup>

정군은 파쪽이 명자를 찾아낼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소설에서는 명자가

74) 「안개구름까다」, 404면.

75) 「안개구름까다」, 403면.

76) 「안개구름까다」, 406면.

77) 「안개구름까다」, 406-407면.

무사히 도망가는 결말로 그리자고 한다. 정군의 소설 속에서 명자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파쪽과의 정의(情意)를 저버리긴 하였으나, 그를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 뒷골목 인생인 파쪽과 명자에게도 그들 나름의 신의가 있고, 열악한 현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의를 저버리게 되더라도 끝내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서사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다만 정군의 “소박하고 순수한 낭만성”은 앞서 소설들과 달리 성매매 여성을 세계에서 폭력적으로 추방하기보다 그녀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결말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군의 예상과 달리 다음날 나타난 파쪽은 아직 명자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군은 또다시 파쪽의 행위를 추측하고, 그러한 추측에 ‘반하여’ 소설을 구상한다. 정군은 파쪽이 명자를 찾았으나 육체관계를 맺은 대가로 그녀를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그들 말로 하자면 ‘안개구름꺾다’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군은 소설에서는 파쪽과 명자가 육체관계는 맺지 않은 것으로 그리자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파쪽과 명자라는 창녀가 필시 안개구름꺾다를 한 모양인데, 선생님이 혹시 작품을 쓰신다면 보통처럼 육체관계까지는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파쪽이 명자를 붙들어가지구 어느 장소로 갑니다. 참, 그게 자하문 밖 어디쯤이래두 좋죠. 제가 자하문 밖에 살아 봐서 알지만 그곳엔 자주 안개가 끼구, 그 안개가 여간 아름답지 않습니다. 파쪽이 명자 붙든날 저녁에두 안개가 끼게 합니다. 그래 들어서 안개끼 언덕에 앉아 얘길 시킵니다. 명자가 파쪽보고 아무말 없이 도망을 친 데는 그럴만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 얘길 파쪽은 말없이 듣구, 나중엔 말없이 명자를 다시 도망시켜줍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센치죠?」

정군은 여기서도 내 창작 의욕을 돋구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들의 웃음은 소설은 어찌됐건 파쪽과 명자 사이가 그렇게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섞여 있었다.<sup>78)</sup>

흥미로운 점은 파쪽의 삶에 대한 정군의 추측도, 정군의 도덕관념을 투영하여 구상한 이야기도 모두 「안개구름까다」의 파쪽의 서사를 빗나간다는 것이다. 정군은 파쪽과 명자의 삶을 계속해서 넘겨짚으면서도 그러한 추측과는 달리 소설에서만큼은 그들에게 순수성을 기입하려고 한다. 나아가 그들의 은어인 ‘안개구름꼴다’를 실제 안개와 구름 속에서 창녀와 펌푸보이가 휴머니즘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전유하려고도 한다. 소설에서나마 뒷골목 인생에게 휴머니즘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은 “창작 의욕을 돋구”는 일이자 그들에 대한 자신들의 바람을 투영하는 일이다. 결국 지식인의 “소박하고 순수한 낭만성”이 투영된 펌푸보이와 창녀의 서사란 기성사회의 잣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간직한 것이며, 그것이 “센치”이자 “낭만”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실제로는 그들에게 도덕률이 남아있지 않으리라 이미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자와 파쪽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군의 추측과 기대를 벗어난다. 파쪽은 우연히 들른 중국집에서 명자를 발견하고, 명자의 피치 못할 사정도 알게 된다. 사실 명자에겐 군대 간 남편이 있었는데, 얼마 전 그가 돌아왔다는 편지가 온 것이다. 명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러자 고향집 주소를 알고 있는 파쪽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하여 파쪽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몰래 도망쳤는데, 괜한 욕심이 생겨 파쪽의 돈마저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명자는 후회하면서 파쪽의 돈을 돌려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쪽은 “이제 자기만 물러가면 그만이다 시켰다.”<sup>79)</sup> 파쪽이 명자를 찾아 헤맨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명자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파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보자기를 베고본듯이 드러누워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안개구름꼴다〉를 하지는 것이다.”<sup>80)</sup> 이에 파쪽은 명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

78) 「안개구름까다」, 407-408면.

79) 「안개구름까다」, 409면.

80) 「안개구름까다」, 409면.

고 포주에게 명자의 위치를 알린다.

「그때의 누나 같은 꼴을 하구서 나와 어찌자는 거예요? 주인아주머니한테 달려가 명자 있는 텔 알렸죠. 집으로 끌어다 놓구 주인 아주머니와 <문어대가리>가 마구 치구 밟구 하드군요. 그치만 명자의 지르는 신음 소릴 듣구두 내가 한 일을 조금도 잘못했다구 뉘우치진 않았어요.」

전과 같이 파쪽은 손님을 끌어다 주고 명자는 그 손님을 받고, 손님이 돌아간 뒤에는 둘이 한 방에서 잤다. 그러나 한 이불 속은 아니었다. 파쪽은 주인 여편네가 명자를 감시하라고 해서 한 방에서 자는 것 뿐이었다. (중략)

「근데 오늘 새벽예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 보니까 명자가 몸을 꼬면서 얼치락 뒤치락 하잖겠어요. 쥐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다리를 쳐들어 달라구요. <비행기과자>를 해서 어서 죽구 싶다는 거죠. 하라는 데루 해 주었죠. 한참 있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알렸죠. <문어대가리>가 그년이 몇 만환짜리라고 한 방에 자면서두 죽는걸 몰랐느냐구 내 뺨을 후려갈기드군요. 나는 왜그런지 마음이 씨원했어요. 그길루 이리 나왔죠.」<sup>81)</sup>

여기서 파쪽의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파쪽은 “명잘 누나처럼 믿구 있었”으나, 정말로 명자가 친누이를 연상케 하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다. 파쪽의 누나는 14후퇴 때 낫선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되었다. 치마를 올리고 죽은 듯 누워있는 명자의 모습은 파쪽에게 누나의 시신을 환기했다. 그러자 파쪽은 명자의 처소를 포주에게 일러 명자가 다시 붙들려오게 만든다. 파쪽은 명자가 포주에게 폭행을 당할 때에도, 명자가 자살을 시도할 때에도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죽음을 방조한다. 포주에게 뺨을 맞고 “마음이 씨원”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81) 「안개구름까다」, 410면.

명자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 같진 않지만, 파쪽은 자신이 “한 일을 조금도 잘못했다구 뉘우치진 않”는다. 이처럼 파쪽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명자가 환기하는 누나의 모습이 “그때의” 누나 같은 꼴, 즉 낯선 군인에게 강간당한 뒤 버려진 몸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자와 파쪽의 관계가 유사 남매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성애적인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명자의 몸이 ‘정조가 훼손된 여성의 몸’으로 인식되었을 때 더 이상 성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설가 ‘나와 언어학자 정군의 기대를 번번이 빗나가는 파쪽의 행동, 특히 명자의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는 펌푸보이의 사회 내부로의 편입이 단지 사창 여성의 죽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명자의 자살을 방조하는 파쪽의 행위는 그간 명자와의 관계가 성애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행위이자 다른 남성에게 강간당한 여성의 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파쪽은 명자와 섹스(의 거래)는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지만, 소설의 결말을 통해 보건대 파쪽에게 명자가 유사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훼손된 누나의 정조(몸)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억압·은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애적 관계였던 명자의 모습에서 죽은 누나가 환기되는 순간 파쪽은 부정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별하는 주체가 된다. 여성 섹슈얼리티를 구획하고, 부정한 여성을 타자화함으로써 소년은 남성으로 성장하는 것이다.<sup>82)</sup>

파쪽은 “오늘 새벽”에 일어난 명자의 죽음을 담담히 얘기한 뒤 ‘나에게 작별을 고한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병을 내게 건너더니 일어 섰

82) 덧붙이자면,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이나 애착 관계에 대한 성애화·젠더화된 인식은 타자화되는 여성의 범주에 어머니와 누나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의 순환 속에서 성애와 착취는 들러붙고, 펌푸보이는 (유사)누나/어머니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 여긴다. 펌푸보이 서사는 소년이 남성성을 획득함으로써 사회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랑을 빙자한 착취 범죄의 감정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 그리고는 여원 등에 주걱뼈만을 크게 움직이며 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준 사이다로 목을 축였다. 두어 모금 마시고 나서 강물 쪽을 보았으나 옥작거리는 사람들 속에 지금 그 소년이 어디쯤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sup>83)</sup> 「안개구름끼다」에서 파쪽은 「부랑아」의 박달, 「분에」의 째짤이, 「쏘리·킴」의 쏘리와 달리 매음굴을 떠나지 않고서도 “알아볼 수 없”게 사람들 사이에 쉽게 섞인다. 그것은 파쪽이 1950년대 국민국가 (재)건설의 핵심적인 통치술인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배제·포함의 원리를 내면화한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매음굴 소년은 부정한 (유사)누나와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사)누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사회 내부로 진입하게 된다.

## 5. 펌프보이의 성장과 ‘특급품’의 조건

1970~80년대 고도성장기를 통과하면서 미군 부대 주변이나 뒷골목을 전전했던 소년들의 성공기가 사회에 전해지기 시작한다. 1970년대 초중반 〈미련〉, 〈나는 너를〉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장현은 “구두닦이-펌프-고물행상”을 거쳐 성공한 청년으로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세가 기울자 가출하여 경주, 서울, 부산 등을 떠돌며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한다. 부산 텍사스의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낮에는 노래하고 밤에는 미군들에게 섹시를 소개하는 「펌프」 노릇을” 하다 “8년 간의 방황을 청산하고 당당한 인기가수로 출세하게 됐다.”<sup>84)</sup> 한편, 1983년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세계 4강 신화를 쓰며 국민적 환호를 받았던 대표팀 감독 박종환은 “625사변직후, 춘천근교에 주둔했던 미3사

83) 「안개구름끼다」, 410면.

84) 「구두닦이-펌프-고물행상 거친 가수」, 『선데이 서울』 6권 23호, 서울신문사, 1973.6.10., 32-33면.

단 GI들”에게 ‘쏘리 박’이라 불리던 “부대 철조망 근처에서 얼씬거리던 까무잡잡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소년은 매일 오후 부대후문쪽에서 서성대다. 이따금씩 외출하는 GI들의 군화만 몇 켤레씩 닦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의 과거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때는 “모든 국민이 전화 속에서 혈벗고 굶주리며 사는 때”였고, “호구를 위해 어른이고 어린이고 일거리를 가리지 않을 때”였기 때문이다.<sup>85)</sup> ‘쏘리 박’의 성공기는 전후 폐허에서 시작하여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대한민국의 도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였다.

‘쏘리 박’의 성공기는 가난을 딛고 일어난 지도자로 귀결되었는데, 과연 용주골에서 따령누나와 헤어진 ‘쏘리 킴’도 이처럼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성매매 여성이 죽은 뒤 매음굴을 떠나리라 결심했던 박달, 짤짤이, 파죽은 어떻게 되었을까. 누나처럼 따르던 이의 죽음을 대가로 얻은 각성이니 다시는 범법 지대에 몸을 담지 않고 정상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랑아」, 「분예」, 「안개구름끼다」의 여성들은 이미 죽음으로써 세계로부터 추방되었기에 그들의 성장담을 기대할 수는 없다. 체포된 따령누나의 미래를 기대하기에도 1960~70년대 기지촌 성산업 경제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물론 “마지막 남은 생의 여백을 수호하려는 구체적인 “휴우매니즘”의 발정”이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익히 알려져 있듯, 김소운의 「특급품」은 인생을 바둑판에 빚대 어떤 시련이라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강조한 수필이다. 바둑판 원목에 균열이 생기면 상품 가치가 확연히 떨어지지만, 나무가 제힘으로 균열을 유착·결합하고 나면 균열의 흔적은 유연성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균열의 흔적이 있는 바둑판은 일급품 위의 ‘특급품’이 된다. 사람도 때때로 시련

85) 「이사람 朴種煥」, 『조선일보』, 1983.6.23.

을 마주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자주 간과되는 맥락이 있다. “1952년 부산”<sup>86)</sup>, 즉 전쟁 중 피난지라는 시공간이 부기되어 있는 이 글에서 작가가 제힘으로 균열을 극복할 것을 주문한 이들은 전후에 정조를 잃어버린 여성들이었다.

전쟁 미망인, 납치 미망인들의 윤락을 운위하는 이들의 그 표준하는 도의의 내용은 언제나 청교도의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채찍과 냉소를 예비하기 전에, 그들이 굶주림, 그들의 쓰라림과 눈물을 먼저 계량할 저울대가 있어야 될 말이다.

신산과 고난을 무릅쓰고 올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이들의 그 절조와 용기는 백 번 고개 숙여 절할 만하다. 그렇다 하기로니 그 공식 그 도의 하나만이 유일무이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

어느 거리에서 친구의 부인 한 분을 만났다. 그 부군은 사변의 희생자로 납치된 채 상금 생사를 모른다.

거리에서 만난 그 부인…… 만삭까지는 아니라도 남의 눈에 떨 정도로 배가 부른…… 그이와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선생님도 저를 경멸하시지요. 못된 년이라고……』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부인 앞에서 내가 한 이야기 바로 이 바둑판의 예화다.<sup>87)</sup>

김소운은 전쟁으로 홀로 된 여성들의 윤락을 운운하는 세간의 도덕적 잣대를 비판하며, 그러한 시련을 겪고도 “과실(過失)의 상채기에 피를 흘리면서 뉘우침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이”<sup>88)</sup>들에게 특급품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는 여성의 정조라는 “유일무이의 표준”만을 내세우며 여성들이 처한 가난과 시련을 간과하는 이들에 대한 일갈이며, 모두가 어려운

86) 김소운, 「특급품」, 『견망허망』, 남향문화사, 1966, 78면.

87) 위의 글, 75, 77-78면.

88) 위의 글, 77면.

시절을 함께 이겨나가려는 관용적인 태도, 작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연한’ 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급품이란 윤락이라는 인생의 균열을 겪은 여성들이 다시금 정상가정 내부로 돌아와 일급품 가정부인보다 더욱 가혹하게 “가시밭길”을 걸어야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차별적인 성규범 그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여성들에게 “제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sup>89)</sup>하길 바라는 유연성은 단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여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용해 주는 시혜적 관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특급품의 기회는 아비 모르는 자식을 낳은 「분애」의 애순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안개구름끼다」의 명자는 군대에서 돌아온 남편과 “제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하길 시도했으나, 낮은 군인에게 강간을 당한 “누나 같은 꼴”을 했기에 끝내 가정부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웹푸보이와 성매매 여성이 ‘정상’ 사회 내부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상당히 차별적이기도 하지만, 실은 공통적이기도 하다. 정상가정과 뒷골목 매음굴에 성역할이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지배적인 성규범을 학습·수행한 매음굴 소년은 사회 내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웹푸보이 재현을 통해 법률작제도적으로만 포착할 수 없는 국민국가 (재)건설기 성 관리 시스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 관리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을 정상사회의 일원으로 배제 혹은 포함하는 통치성의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으로만 파악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연동하는 성 시장의 구조는 물론이고 행위자들의 성차와 성역할 수행이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해방과 전쟁을 통과하면서 변화한 성매매 시장과 구성원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전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소년 소개꾼, 즉 ‘웹푸보이’에 주목하였다. 소설 속 웹푸보이들은 성매매 여성과 섹슈얼한 관계

---

89) 위의 글, 74면.

를 맺고 있는 것으로 그려짐에도 이러한 행위는 전쟁고아의 모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재현/독해되어 왔다. 그러나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추방으로 펌푸보이가 매음굴을 떠나는(일반 사회에 섞이는) 결말을 보인다. 성매매 여성은 제거되고 소년만 사회로 돌아가는 서사 패턴은 이들 소설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창 여성에게만 전가한 당대의 성차별적 담론의 자장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펌푸보이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서 획득하는 남성성이야말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글은 펌푸보이 재현 소설들이 서사 구조의 심층에서 마이너리티 소년에게 정상사회에 편입하는 대가로 남성성의 내면화와 사창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송병수, 「썬리·킵」, 『문학예술』 1957년 7월호, 문학예술사, 1957.  
\_\_\_\_\_, 「분애」, 『자유문학』 1960년 10월호,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60.  
추식, 「부랑아」, 『현대문학』 1955년 6월호, 현대문학사, 1955.  
황순원, 「안개구름끼다」, 『사상계』 1959년 1월호, 사상계사, 1959.  
「군정청 관보」, 『선데이 서울』, 『신천지』  
『경성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평화신문』

2. 단행본 및 논문

-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선인, 2019.  
김소운, 『진망허망』, 남향문화사, 1966.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 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1), 한국사회학회, 2015.  
박홍근,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 : 냉미주의 국가동원의 계보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선민서, 「1950년대 펌프소년과 온정적 재현의 의미 -송병수의 「썬리 킵」, 황순원의 「안개구름끼다」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80, 우리어문학회, 2024  
안용희, 「송병수 소설의 유형적 특징과 변모 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 3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 역사학연구소, 2001.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2007.  
이지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조미숙, 「1950년대 휴머니즘 문학 -추석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21·22, 건국대학교 어국문학연구회, 1997.  
홍주영, 「황순원 문학과 서정범의 은어 연구에 깃든 타자성 탐구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65,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캐서린 H.S. 문,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Abstract>

##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Pimp Boys' in 1950s Novels

Lee, Jieun

This paper examined the representation of the 'pimp boy' in 1950s novels to elucidate the sex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nation-state's (re)building period — a system that cannot be captured sole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sex management system w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governance, determining who was included or excluded from normal society. It cannot be understood solely as a state policy. The sex market, which is linked to laws and institutions, is part of the system, as are the sex differences and gender roles of the agents involv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s that represent the pimp boy and the discourse and dominant gender norms of the time. The pimp boys in the novel engage in sexual relationships with sex workers, but this has been interpreted as a longing for the motherhood of war orphans. Moreover, the novels all share a common ending where the pimp boy leaves the brothel following the death of a sex worker. The narrative pattern where sex workers are deported while only the boy returns to society demonstrates that these novels operate within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sexist discourse, which solely attributed the causes of social disorder to prostitutes. The masculinity that pimp boys acquire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sex workers is precisely the condition enabling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 novels demand

that minority boys internalize masculinity and expel sex workers.

Key words: brothel, prostitution, pimp, war orphan, gender role,  
masculinity, Hwang Soon-Won, Choo-sik, Song Byeong-soo

투 고 일: 2025년 11월 7일

심 사 일: 2025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2일

수정마감일: 2025년 12월 28일